

07 2027학년도 수시

논술 고사일이 겹칩니다

2027 고사일 분포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	숫자부터	2
02	수능 전과 후	3
03	무엇이 걸리나	4
04	그래서 무엇을	5
05	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2027 논술 고사일 전부 — **시험일은 16일뿐인데 사흘에 55%가 몰려 있습니다**
- ◆ 하루에 **여덟 개 대학**이 함께 시험을 치는 날 · 그날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뿐
- ◆ 수능 전(16%)과 후 — **수능 전 논술의 값과 대가**
- ◆ 날짜 말고도 겹치는 것 셋(같은 날 오전·오후, 학종 면접, 이동 거리) · 달력 짜는 차례

01 · 숫자부터

사흘에 절반이 넘게 몰립니다

「논술 세 곳 쓰려는데, 두 곳이 같은 날입니다.」

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원서를 낸 뒤에는 못 바꿉니다. 논술은 직접 가서 치러야 하니, 같은 날이면 한 곳을 버려야 합니다.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**달력** 문제입니다.

2027학년도 논술 **1,033줄**(32개 대학)의 고사일을 세어 보았습니다. 시험일은 **16일**뿐인데, 자리는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.

고사일	자리	비중	그날 시험 치는 대학
11월 22일	230	23%	8개
11월 15일	185	18%	7개
11월 16일	145	14%	7개
11월 23일	135	13%	7개
9월 27일	57	6%	2개

가장 몰린 사흘에 전체의 55%가 들어 있습니다. 닳새로 넓히면 74%입니다.

그 뜻은 이렇습니다. 논술 자리는 1,033개인데, 한 학생이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날짜만큼입니다. 같은 날에 여덟 개 대학이 시험을 치면 **그중 하나만** 갈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논술을 여러 장 쓰실 생각이라면 **학교를 고르기 전에 달력부터 펴서**야 합니다. 순서를 반대로 하면 원서를 버리게 됩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논술 고사일을 저희가 집계. 32개 대학 1,033줄 가운데 고사일이 밝혀진 1,021줄 기준입니다. 일정은 정정될 수 있으니 각 대학 공지를 확인하십시오.

02 · 수능 전과 후

두 덩어리로 갈립니다

고사일은 수능을 기준으로 성격이 완전히 갈립니다.

언제	자리	비중	무엇이 다른가
수능 전	164	16%	수능 준비를 끝고 가야 합니다
수능 후	869	84%	수능 가채점 을 보고 갑니다

수능 전 논술의 값과 대가

값 — 수능 전에 치르면 경쟁자 가운데 상당수가 빠집니다. 수능이 코앞이라 안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. 그래서 결시율이 높습니다.

대가 — 수능 직전 한 주를 논술에 쓰게 됩니다. 그 시기의 하루는 평소의 하루와 무게가 다릅니다. 그리고 **최저를 걸어 둔 자리**라면, 논술을 잘 봐도 수능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.

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. 수능이 확실한 학생에게는 수능 전 논술이 유리하고, 수능이 아슬아슬한 학생에게는 위험합니다. 「경쟁률이 낮아 보이니까」만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.

수능 후 논술은 몰립니다

84%가 수능 뒤 2주 남짓에 몰려 있습니다. 앞의 표에서 보신 대로 그 안에서도 **며칠에 다시 겹칩니다**. 이 짧은 기간에 몇 곳을 갈 수 있는지가 실제 지원 가능 수입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결시율에 대한 설명은 저희 판단이며 대학은 결시율을 대개 공개하지 않습니다.

03 · 무엇이 걸리나

날짜 말고도 겹치는 것들

달력을 볼 때 날짜만 보시면 놓치는 것이 셋입니다.

Q. 하나 — 같은 날 오전·오후

같은 날이어도 **계열에 따라 시간이 다른** 대학이 있습니다. 인문은 오전, 자연은 오후인 식입니다.

그러면 **같은 날 두 곳을 갈 수 있을까요**. 산술로는 가능해 보입니다. 그런데 **고사장 사이를 이동할 시간**이 있어야 하고, 앞 시험이 늦어지면 뒤가 통째로 날아갑니다. **권해 드리지 않습니다**. 하루에 논술 두 개는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.

Q. 둘 — 면접과 겹칩니다

논술끼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. **학종 면접**도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. 여섯 장 안에 논술 셋과 면접 둘이 있으면 **다섯 개의 날짜를 한 달 안에 맞춰야** 합니다.

여섯 장 전체의 일정을 한 장의 달력에 찍어 보십시오. 논술만 보다가 면접과 부딪히는 일이 잦습니다.

Q. 셋 — 이동 거리

고사장이 멀면 **전날 이동**해야 합니다. 그러면 실제로는 **이틀**을 쓰는 것입니다. 연달아 이틀에 시험이 있는데 고사장이 서로 멀면 둘 다 제대로 못 봅니다.

그리고 고사장은 **본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**. 분산 고사장을 운영하는 대학이 있으니 **어디서 치르는지**를 확인하십시오.

정리하면 논술 지원은 「**몇 장 쓸까**」가 아니라 「**며칠을 쓸 수 있나**」의 문제입니다.

출처: 각 대학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전형 일정·고사장 안내. 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 확인하십시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달력을 짜는 차례와 점검표

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버리는 원서가 없어집니다.

차례	무엇을	언제
1	쓰고 싶은 곳의 고사일 을 다 적습니다	원서 쓰기 전
2	달력에 찍어 봅니다 — 면접도 함께	원서 쓰기 전
3	겹치는 날은 하나를 고릅니다	원서 쓰기 전
4	빈 날짜에 다른 대학 을 찾습니다	원서 쓰기 전
5	고사장 위치 와 이동 시간을 봅니다	원서 쓰기 전

다섯 가지가 모두 「원서 쓰기 전」입니다. 원서를 낸 뒤에는 **날짜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**.

4번이 실전에서 가장 값집니다. 겹치는 날을 피해 **빈 날짜의 대학**을 찾는 것이, 경쟁률 낮은 곳을 찾는 것보다 **훨씬 확실한** 이득입니다. 날짜가 비어 있으면 그 원서는 **살아 있는 원서**이고, 겹치면 **낸 순간 반쯤 죽은 원서**입니다.

논술 원서를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쓰려는 곳의 **고사일** 을 모두 적어 보았는가
- ☐ 달력에 **찍어** 보았는가
- ☐ 같은 날에 **두 곳** 이 들어 있지 않은가
- ☐ **학종 면접** 날짜도 함께 찍었는가
- ☐ 계열에 따라 **오전·오후** 가 다른지 보았는가
- ☐ **고사장** 이 어디인지 확인했는가
- ☐ 연달아 있는 날의 **이동 거리** 를 보았는가
- ☐ 수능 **전** 에 치르는 것이 몇 개인가

마지막 항목을 세어 보십시오. 수능 전 **논술이 둘 이상이면 수능 준비가 끝납니다**. 한 개까지가 대개 감당하실 수 있는 선입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**달력 짜기**는 **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**. 각 대학 요강에서 고사일 한 줄씩 옮겨 적고 달력에 찍으면 끝입니다. 한 시간이면 하십니다. **그리고 이 한 시간이 원서 한두 장을 살립니다**. 상담에서 이 일에 시간을 쓰시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— 그 시간에는 **어느 자리가 나에게 맞는지**를 물으셔야 합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논술 일정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논술은 몇 장까지 쓰는 것이 좋은가요?

날짜가 정합니다. 장수를 먼저 정하고 학교를 찾으시면 겹칩니다.

앞의 숫자를 다시 보십시오. 고사일은 **16일**이고, 그 가운데 **사흘**에 **55%**가 몰려 있습니다. 서로 다른 날짜로 셋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.

그리고 논술은 **73%**가 수능최저를 겁니다. 최저를 못 넘기면 논술을 잘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. 날짜가 되고 최저도 되는 자리만 세어 보시면 대개 두세 장으로 정리됩니다.

여섯 장을 논술로 채우는 것은 대개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. 날짜가 겹쳐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그보다 적기 때문입니다.

Q. 고사일이 겹치면 하나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?

네. 그리고 원서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.

그래서 겹치는 줄 알면서 두 곳을 쓰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. 「가서 보고 정하지」가 안 됩니다 —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.

다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. 예컨대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. 수능 뒤 고사라면, 가채점으로 최저 충족 여부를 보고 최저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.

다만 이건 원서 두 장을 걸고 하나를 버리는 계획입니다. 미리 그렇게 정하고 쓰는 것과 모르고 겹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. 모르고 겹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.

한 줄로 남기면

논술 지원은 학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날짜를 고르는 일입니다. 달력을 먼저 펴십시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고사일을 집계한 것입니다. 개별 대학의 일정과 경쟁률은 신지 않습니다. 일정은 대학이 정할 수 있으니 지원 전에 각 대학 입학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